

협력 네트워크 강화 특화 전략 마련

군산시·혁신·연구기관·대학, 지역 산업 발전 간담회

군산시가 지역 혁신·연구기관·대학과 간담회를 개최해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일 지역 혁신·연구기관·대학과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산업 발굴 및 산업분야 특화 전략 마련을 위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군산시 김미정 부시장 (재)지동차용합기술원장, 건설기계부품연구원장, (사)전북산학융합원장,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플라즈마 기술연구소장,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본부장,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담당장 등 지역 혁신·연구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마련과 각 기관들의 신산업 추진방향 및 전략산업 육성방안 등 다양한 토의가 이어졌으며, 향후 인프라 보유기관 간 연계 협력 플랫폼 구축 등 구체적인 협업 방향도 제시됐다.

특히, 친환경·자율주행·전동화에 따른 상용차·건설기계분야 신규 중대형 R&D 발굴, 지역산업 수요 기반의 전문인력양성, 플라즈마 폐자원 자원화 적용 및 소부장 플라즈마 신뢰성 센터구축, 중소형·특수선 분야 조선 해양 생태계 구축 등 기관별 중점 추

진 방향을 공유했다.

또, 이차전지 기업 등 산업체 수요 맞춤형 공동 대응 방안 모색, 기업체 인력 공급 정주여건 개선방안 등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폭 넓은 내용들이 논의되어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김미정 부시장은 "지역 산업·경제 참여와 지역인재 유출 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 대학·연구·혁신 기관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대에 맞는 지역민의 특화 산업 발굴로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시민이 행복한 익산 만들 것”

정현을 익산시장,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해 가정방문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난 2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등1동에 거주하며 홀로 4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을 방문했다.

정 시장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4명의 자녀가 화목하게 지내는 한부모 가정을 찾아 복지사각지대 현장을 살폈다.

이날 가정방문은 건강과 안부를 시작으로 생활아려, 자녀들의 진로내용, 복지서비스 지원과 수혜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대상자 이모씨는 “시와 영등1동의 관심과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자녀들이 행복해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보이며 자신도 삶에 대한 활기와 생기를 찾게 되어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

다”고 밝혔다.

정현을 시장은 “자녀들과 함께 계시는 모습이 따뜻한 가정, ‘우리가족 최고’라는 소중한 느낌을 전해준다”며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 온기와 사랑을 전해드릴 수 있어 반갑고 시민이 행복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답했다.

시는 앞으로 매월 1회 시장이 직접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와 위기가구 등을 가정방문해, 대상자의 주거환경, 영양섭취, 건강상태 등 다양한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앞으로 추진해야 할 복지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서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축제 개최

제2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9~11일 8개 경기장서 진행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로 하나되는 제2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이 익산에서 개최된다.

익산시장장애인체육회(회장 정현을 익산시장)는 장애인 체육발전에 대한 시의 의지를 반영해 대회 유치에 성공하며 제2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을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익산에서 치른다.

어울림 대회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을 이뤄 경기에 참여하는 통합스포츠 대회다.

지난해 인천에서 7종목 700여명이 참여해 열린 제1회 대회보다 규모가 더 커져 8종목의 선수 및 가족, 임원

을 포함하여 약 2,5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종목은 당구, 수영, 볼링, 좌식배구, 휠체어러비, 트라이애슬론, 파크골프이며 신규로 스크린골프가 추가됐다.

대회는 익산시반다비체육센터, 서부다목적체육관, 북부권어울림파크골프장, 합일올림픽스포츠센터, 익산교육문화회관, 원광대학교, 남부탑볼링장, 명품스크린골프장 등 8개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시는 그동안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넓히고자 북부권 어울림파크골프장, 반다비체육센터 등 인

프라를 대거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종목을 확산해 나갔다.

또한 국내 장애인 전국대회의 꽃인 ‘2018전국장애인체전’, ‘2019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이어 제2회 전국어울림 생활체육 대축전을 개최하면서 전국장애인대회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됐다.

정현을 시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스포츠 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도록 지원하여 명품스포츠도시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간여행축제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자 모집

군산시가 2023년 제11회 군산시간여행축제 시민참여프로그램(시민기회,프리마켓,주전부리) 운영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11번째를 맞이하는 군산시간여행축제는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체험, 경연,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펼쳐진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꾸미고 만들어가는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체험과 먹을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민 기회 프로그램은 창의적이고 축제의 주제와 연관이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축제 기간 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단체가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12개팀이 선정되고 최대 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프리마켓(Free Market) 셀러는 의류, 공방/공예, 잡화 등 시민 각자의 개성

이 담긴 상품을 제작·판매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참가비는 10만원이며, 지원자를 대상으로 직접 추첨을 통해 30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주전부리 코너는 축제에 어울리는 먹을거리를 판매할 개인 또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규모 초과 시 심사를 통하여 10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15만원이며, 심사기준은 메뉴의 독창성, 적합성, 대중성, 가격의 적정성이다.

운영기간은 축제 기간인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총 4일이며, 운영장소는 시간여행마을 일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오는 23일까지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admin@localfriendly.co.kr)로 접수할 수 있다. 각 프로그램은 중복해 참여를 신청할 수 없으며 운영자에게 부스 및 테이블 등 운영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제공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모현도서관, ‘전쟁은 눈물, 평화는 웃음’ 북큐레이션 전시

익산시 모현시립도서관은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직접 선정한 ‘전쟁은 눈물, 평화는 웃음’ 주제의 북큐레이션을 마련했다.

북(Book)과 큐레이션(Curation)의 합성인 북큐레이션은 특정한 주제에 맞는 여러 책을 선별해 독자에게 제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전시는 상반기 열린시민교양강좌 ‘북큐레이션(자격증반)’ 수업의 일환으로 수강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해 그 의미를 더했다.



6월 한 달간 모현도서관 2층 종합정보자료실에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쟁은 눈물, 평화는 웃음 주제의 그림책 20여 권의 북큐레이션을 만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한편 ‘북큐레이션(자격증반)’은 지역 주민들의 도서 선정 안목을 키워주기 위해 한국북큐레이터협회와 연계하여 ‘북큐레이터 2급’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증반이다. 전문 지도강사를 선정해 총 15주 동안 북큐레이션의 개념과 배경, 대상과 공간에 따른 큐레이션 방법, 전시기획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들을 실습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수업에 참여한 수강생은 “평소 북큐레이션에 관심이 많았는데 직접 주제와 도서를 선정하고 ‘책꼬리’를 만드는 등의 실습이 무척 보람찼다”며 “자기개발과 직업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익산시,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익산시는 여름철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일까지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민관 합동점검반은 익산시 옥외광고협회와 도로관리과 직원들로 구성해 직접 현장을 돌며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및 대로변 일대의 지주이용간판·벽면간판·돌출간판 등의 결속 상태, 노후화에 따른 붕괴 및 추락 여부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붕괴 등 안전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광고물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광고물에 대해 업소주·광고주의 자발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평가 3년 연속 우수

군산시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4월 18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2020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4천만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57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군산은 92.74점으로 기초자치단체 평균(56.08)대비 높은 수준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평가 항목에는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등 5개 영역으로 나눠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처리 실태를 평가했다.

/군산=이재춘기자

익산 성요셉노동자의집 외국인지원 행안부장관상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해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시책을 적극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익산 성요셉노동자의집(대표 김종성)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성요셉노동자의집은 1983년 설립 이래 외국인주민의 노동인권, 출입국 등 생활 전반에 대한 다양한 상담 및 지원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이번 수상은 임금체불 문제 등에 대한 발생시 연계기관을 통한 적극적인 법적대응 지원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고용주와 외국인 노동자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찾아가는 통역서비스’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이와 함께 △응급구조 등 의료서비스 및 쉼터 △외국인 주민 체류 및 출국관련 절차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백신접종 예약대행 및 마스크 배부 등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을 돕는 우수한 활동도 높게 평가를 받았다.

/익산=이재춘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